

귀농어귀촌 정책 청년층 유입 중점

도,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수립·시행... 4개 핵심전략 30개 세부사업 2021년까지 3102억 투자

전북도는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

또한 전북도가 지속되는 귀농어·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사립 찾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귀농어·귀촌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저성장,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등으로 2011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북도는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업농어촌은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에서!' 라는 슬로건으로 5년간 도시민 10만명 도 내 농어촌 유치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매년 2만명의 도시민 유치와 청년층 1000가구를 귀농창업자로 육성할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귀농어·귀촌의 정확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귀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홍보와 기관별 귀농어·귀촌 교육을 확대 운영하며 귀농어·귀촌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주택과 농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재배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멘토를 연결해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전북도에 뿌리를 내리는데 일조하며 귀농어·귀촌의 실질적

인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귀농어·귀촌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각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귀농어·귀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3,102억원을 4개 핵심전략 30개 세부사업에 투자한다.

4대 핵심전략과 30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귀농어·귀촌 교육 및 홍보에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등 8개 사업 / 219억원, 임시 거주시설 마련에 체재형 가족 실생활장 등 7개 사업 / 333억원, 안정적 소득 창출은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등 11개 사업 / 2,527억원, 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은 재능기부단 운영 등 4개 사업 / 23

억원을 투자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귀농어·귀촌 메카'를 이를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 후계인력 유입과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지원 및 지역민과의 융화 등에 있었던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일자리·주거 등 안정적 정착지원 및 귀농어·귀촌 주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강승구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귀농어·귀촌에 대한 제도적 정책 방향과 활성화에 주체별 역할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지속 가능한 귀농어·귀촌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2017 봄꽃여행은 전북에서'

도, 서울역 지역관광홍보전 참가... 전북투어패스 홍보

전북도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2017년 봄꽃여행은 전북에서'라는 목표로 서울역 지역관광홍보전에 참가한다.

이번 홍보전을 통해 전북의 봄꽃 여행지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서울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2017 전북방문의 해, 전북투어패스 등 전북도 중점 사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역에서 기차와 연계한 관광 상품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 중 신청순으로 장소를 제공했는데 전북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홍보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2016년에도 서울역 전국관광명소 페스티벌에 순창군과 함께 참여해 전북관광지원과 순창군의 대표 특산품인 고추장을 함께 홍보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도는 이번 서울역 지역관광홍보전 이외에도 전라북도 Grand Sale Week, 국제미술문화 교류 축제, 전북투어패

스 체험수기 공모전, 내일로 연계 여행상품,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북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한 장의 카드로 전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60여 주요 관광지 및 시·군 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1,000여개의 맛집과 숙박, 공연, 체험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를 통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육거리 관광홍보과장은 "본격적인 봄시즌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 완산공원, 군산 은파유원지, 원주 송광사, 진안 마이산 및 원안정 마을, 남원 요천 및 정음 천변 등 꽃구경 명소를 많이 알릴 계획"이라며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 등 전북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도 함께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해양수산분야 현장 찾아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9일 해양수산분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출포만 갯벌생태공원, 천일염 6차산업화사업(예정지),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출포만 갯벌생태공원'을 방문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90억을 투자해 습지 갈대복원, 염생식물원 및 갯벌탐방로 등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휴일에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천일염 6차 산업화 사업장'을 방문해 단계별로 사업화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실행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곰소 수산물판매센터와 젓갈발효식품센터를 방문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9일 해양수산분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출포만 갯벌생태공원, 천일염 6차 산업화 사업(예정지),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도, 4월 14일까지 접수

전북도 오는 4월 14일까지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

공모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와 생애주기 분야, 생활불편 분야 등 3개 분야이며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과제가 대상이다.

도는 지난해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를 실시하고, 중앙공모에 참여해 행

정자치부 장관상 3건 수상했고, 도에서도 도지사상 10건을 시상했다.

도는 2016년과 같이 중앙 공모 선정과제 외에도 부처 수용과제 중심으로 10건 정도를 별도 선정해 도지사상과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 규제개혁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체험하자"며, 행정자치부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공모'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 선발

전북도와 전북인재육성재단은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2017년 해외연수 사업은 초등학생(5~6학년)과 중학생, 대학생 등 총 700명(초등학생 335명, 중학생 335명, 대학생 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4월 4일까지 주소지 시·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초·중학생은 6주(집중영어연수 4주, 정규학교 2주)동안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어권(중국)으로 연수가 가능하며, 영어권은 60%, 중국어권은 80%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개인별 연수프로그램에 의해 25주~48주까지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기타 어학권으로 연수가 가능하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영어권 연수생 선발은 EBS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능력 공인인증시험인 TOSEL로 대체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영어권으

로 해외 연수를 신청하는 초등학생(5~6학년)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2015년 1월 이후의 토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토셀 성적표가 없을 경우 반드시 4월 29일에 실시하는 토셀 특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반면 중국으로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면접 시험(어학)에 응시하면 된다.

해외연수를 신청하는 중학생 신입생은 학력진단평가 성적, 2~3학년은 직전학년 성적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방법은 각 시군별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며, 초등학생 영어권 지원자는 학교장 추천과 토셀평가, 생활정도평가, 초등학생 중국어권은 학교장 추천과 면접평가, 생활정도 평가가 이뤄지며, 중학생 및 대학생 지원자는 성적평가 및 면접, 생활정도 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6월 2일에 도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각 시군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인재용 기자

도,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도서벽지 어업현장을 찾아 무상으로 수리, 점검하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한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42개 어촌계)에 5개반을 편성해 3월부터 매월 1~2회씩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어업인 1인당 1회, 7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수리해 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와 인근 어촌계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환경시험성적서 위변조 못한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 복사방지패턴이 적용된 특수보안용지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지하수나 폐기물 등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번 특수보안용지 도입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성적서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필요로 써, 부정성적서 유통방지와 관리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